

보도시점 2023. 5. 8.(월) 08:00 배포 2022. 5. 8.(월) 08:00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해외수주 집중지원 통한 경제활력 제고 추진

-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 미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 이행 -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3차 협상에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 -
- 해외수주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8(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¹미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 계획, ①⁻²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②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③⁻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논의 및 의결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10대 성과별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IPEF 3차 협상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23년 해외수주 35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별첨]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총괄]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15-7611)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❶-1 미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괄>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장 김상형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1
	<협조> 과기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박지영 과장 윤명호 사무관	044-202-4340 044-202-4341
	<협조>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	김혜연 과장 전현 서기관	02-2100-7684 02-2100-7698
	<협조> 산업부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 윤경민 사무관	044-203-5650 044-203-5658
	<협조> 중기부 국제통상협력과	오지영 과장 박승호 사무관	044-204-7550 044-204-7556
❶-2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총괄> 중기부 특구정책과	윤석배 과장 김혜남 사무관	044-204-7190 044-204-7204
	<협조> 기재부 지역정책과	윤수현 과장 김동연 사무관	044-215-4570 044-215-4573
❷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총괄> 산업부 인태통상기획팀	장미화 팀장 노정림 사무관	02-2100-1370 02-2100-1376
	<협조> 기재부 통상정책과	이재완 과장 하정현 사무관	044-215-7670 044-215-7672
❸ `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총괄> 기재부 국제경제과	김봉준 과장 박효은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1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5.8)

□ 지금부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및 대응방향]

□ 세계경제는 高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존¹⁾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이러한 대외여건 하에서, 우리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²⁾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³⁾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와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25건 이상의 수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①-1 미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계획]

□ 먼저 이번 미국 국민방문시 경제분야 핵심성으로 韓美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이를 위해 ①첨단산업의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②우주 등 미래 게임체인저인 핵심·신흥기술 협력의지 공고화, ③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의 59억불 투자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1) 美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0.25%p 인상(5.3), EU 유럽중앙은행(ECB) 0.25%p 인상(5.4)

2)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23.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3) 민간소비(전기비, %) : ('22.1/4)△0.5, (2/4)2.9, (3/4)1.7, (4/4)△0.6, ('23.1/4)0.5

- 정부는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⁴⁾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 첫째, 차세대 반도체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⁵⁾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 美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 둘째, 올 하반기 양국 NSC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 셋째, 방미 중 59억불 투자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2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 다음으로 미국 순방시 방문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⁶⁾의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⁷⁾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 금년 중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 ①반도체 동맹, ②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③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④기술동맹 기반 구축, ⑤미래산업 게임체인저 공동 설계, ⑥클러스터 발전 협력, ⑦투자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⑧PEF 진전 기여, ⑨외환시장 협력, ⑩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5)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6)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

7)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②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추진계획]

- 작년 5월에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3차 협상이 진행(5.8~15일, 싱가포르)될 예정입니다.
- 그간 우리정부는 경제안보, 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대 분야 **全** 협상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특히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관철시키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③ '23년 해외수주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 마지막으로 정부는 '23년 해외수주 35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간(G2G)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금년 중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대한 외교·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과 같이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 금번 15대 핵심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우선 투자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고, '해외 인프라 금융 투자 협의체'⁸⁾를 가동하여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8)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참여 예정